동안거 백일기도

동안거 백일기도는 오로지 깨달음의 수행정진을 통하여 영원한 해탈을 향해 나아가기를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오늘 선방의 스님들처럼 동안거 기간 동안 부처님 전에 100일 간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하고 수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법주사 동안거 백일기도에 동참하시어 기도하고 정진하는 삶,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베푸는 보시행을 이어가시는 자랑스러운 불자님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쉼 없는 기도정진으로 2025년을 회향하고 2026년 맞이하는 준비된 불자님이 되시길 바라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님 가정에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일정 : 2025년 **12**월 **4**일 ~ 2026년 **3**월 **3**일

동참보시 : 한가족 **20**만원



동지기도안내

동지는 '작은 설'이라고도 하며 한 해의 시작으로 보아 묵은해를 보내고 순조롭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염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감사와 참회를 하고 새해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서원을 세우며 정성스럽게 팥죽을 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의 손길로 이웃과 함께 팥죽을 나누어 공덕을 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을사년 동지기도 동참하시어 묵은 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함에 있어서 부처님 전 경건하게 기도하며 나눔의 공덕 지으시는 법향 가득한 법주사 신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일정 :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입재) ~ **12**월 **22**일 월요일(회향) 동짓날

동참보시 : 한가족 **3**만원

※ 동지 팔, 찹쌀 공양올리시면 좋습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5 | 12



도림 선사와 백낙천



당나라의 백낙천(白樂天 772~846)이라고 하면 유명한 시인이다. 본명은 백거이, 자가 낙천, 호는 향산거사이다. 그가 항주자사杭州刺史로 부임한 후 우월감에 충만해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멀지 않은 사찰에 도림 선사(道林禪師 741~824)라고 하는 이름난 고승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로 찾아갔다. 도림 선사는 청명한 날이면 경내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위에 올라가 좌선坐禪을 하곤 하였다. 마침 백낙천이 도림 선사를 찾아온 날도 나무 위에서 좌선하는 중이었다.

백낙천이 나무 아래 서서 좌선하는 스님의 모습을 올려다보니 아슬아슬한 생각이 들었다.

"선사의 거처가 너무 위험합니다." 선사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네가 더욱 위험하네." 백낙천이 어이없어 하면서 "나는 벼슬이 자사(도지사)에 올라 강산을 진압하고, 이렇게 안전한 땅을 밟고 있거늘 무엇이 위험하단 말이오?"

"마음은 높으나 번뇌가 끝이 없고 벼슬은 높으나 언제 좌천될지 모르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 순간 백낙천은 자기의 마음을 환하게 꿰뚫어 보는 선사의 말씀과 당당하고 편안한 스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제가 평생에 좌우명을 삼을 만한 법문 한 구절을 듣고 싶습니다."하고 선사를 시험하려 했던 불손한 태도를 바꿔 공손한 자세로 가르침을 청했다.

제악막작諸惡莫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중선봉행衆善奉行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의自淨其意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시제불교是諸佛敎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대단한 가르침을 기대했던 백낙천은 "그거야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니요." 선사는 침착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네."

삼세해아수도득三歲孩兒雖道得 팔십노인행부득八十老人行不得

이 말을 들은 백낙천은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당대의 문장가 백낙천은 그 자리에서 도림 선사에게 귀의하여 제자가 되고 불법의 수행을 돈독하게 하였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5 12 | 통권 407호



2 **벽화이야기** 도림 선사와 백낙천
4 **이달의 법문** 차가운 계절에 더욱 뜨거운 정진을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팥죽 한 그릇에 담긴 지혜와 공덕 정덕 스님
9 **특집** 동지와 불교 편집부
10 **수행여화** 만 가지를 잘할 필요가 무엇 있으랴 현진 스님
12 **감로의 글** 법설의설경 – 연기법의 의설 – 열한 번째 고광 스님
15 **걸망메고** 법주사의 숨결을 따라 무진 스님
17 **법주사 템플스테이**
18 **법주사 공양미 / 법주사 행사일정**
19 **법주사 소식**
20 **미륵재일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생일불공**
21 **을사년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안내**
22 **승려복지 후원 안내 / 병오년 운맞이 일년기도**
23 **吉祥如意**
24 **동안거 백일기도 / 동지기도 안내**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9(단기4358)년 12월호 통권 407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진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차가운 계절에 더욱 뜨거운 정진을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산문을 감싸는 바람이 한층 차가워지고, 속리산 자락의 나뭇잎들이
긴 숨을 내려놓는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고요하고 적막한 겨울의 초입에서
우리는 동안거를 맞이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나 새해를 기다리는 이 시기야말로
수행자에게는 마음을 맑히고 지혜를 틔우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법주사 총지선원에 입방한 수좌 스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늘 옛 선지식들이 말하던 수행자의 기상과 원력이 이 도량에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지만, 도를 구하려는 마음에는 추위가 없습니다.
세간의 따뜻함을 뒤로하고 스스로 겨울의 고요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문을 넘은 것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기술을 익히는 일이 아니라,
한 걸음, 한 호흡을 바르게 하는 일이며, 번뇌를 끊어내기보다 번뇌를 관照하여
본래 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수좌들이 산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이며, 그들의 발심은 곧 깨달음의 첫 단추가 됩니다.
선방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시간과 세속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마음을 마주하겠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며칠의 인내는 기운의 힘으로 되지만, 서너 해의 닦음은 마음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안거 석 달을 오롯이 지켜낸다는 것은 신심과 원력이 서로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신심은 부처님을 깊이 의지하는 마음이고, 원력은 '이번 겨울에는 반드시 나를 바로 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수행자의 진정한 힘은 고요한 방에 앉아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자리로 돌려놓는 그 끈기, 일어나는 생각을 탓하지 않고
살피는 그 정성, 그리고 그 정성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이제 동안거에 들어선 모든 수좌들에게 저는 부디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그치지도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은 잘하려고 애쓸 때
오히려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정진은 특별히 깊은 경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정진을 오늘 하는 것, 그 단순하고 꾸준한 실천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어느 순간 문득, 마음을 괴롭히던 번뇌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는 때가 찾아오면,
그때가 바로 수행이 꽃피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곧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편, 법주사에는 늘 부처님과 법, 그리고 수행하는 스님들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불자님들이 계십니다. 불자님들의 공경과 기도는 선방의 수행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절, 한 번의 합장, 작은 공양의 정성까지도 선방에는 잔잔한 파문이 되어 닿습니다.
그 마음이 모여 청정도량을 지탱해 왔고, 그 신심이 모여
수많은 선지식을 길러 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차가워지기 쉬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부처님께 귀의하며
마음을 돌보는 그 순간이 바로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 바람이 스치는 소리, 잠시 멈추어 들여다본 내 마음속에서도
법은 늘 흐르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이 겨울, 부디 몸도 마음도 건강히 지내시며,
부처님을 떠올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법주사는 천년의 수행 전통을 간직한 도량입니다.
속리산의 고요한 품속에서 수많은 선지식들이 수행을 다져 왔고,
그 정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좌 스님들이 일으키는 한 호흡의 기운은 도량을 맑히고,
불자님들의 기도는 그 맑음에 온기를 더합니다. 수행자와 불자, 승가와 재가가
서로를 북돋우는 이 아름다운 인연이야말로 법주사의 가장 큰 복이며 자랑입니다.
이번 동안거가 수행자들에게는 마음의 근본을 다지는 시간이 되고,
불자님들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내면을 단단히 가꾸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더욱 또렷이 드러납니다.
그 빛과 향기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지스님 법문

팥죽 한 그릇에 담긴 지혜와 공덕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속리산의 골짜기에 겨울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산사의 나뭇잎이 모두 제 자리를 내려놓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우리는 다시 동지冬至를 맞습니다.
동지는 24 절기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밝음이 조금씩 길어지는 날'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지는 새해의 기운이
시작되는 자리, 즉 '작은 설(小歲)'이라 부르며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불가에서도 동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광명이 첫걸음을 떼는 날로 여겨 왔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해도 그 끝에서
곧 밝음이 드러나듯, 괴로움과 번뇌의 시간이
길었더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동지는 바로 그 힘을 일깨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법주사에서는 매년 동지를 맞아
동지기도를 봉행하며, 불자님들과 함께
새로운 기운을 모아 왔습니다.

동지기도의 의미는 단순히 복을 빌거나
소원을 비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첫째, 한 해 동안 쌓인 업장을 소멸하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
풀리지 못한 감정, 스스로도 모르게
지어 버린 말과 행동의 흔적들을 부처님 전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연입니다.
둘째, 새해를 향한 첫 발원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동지는 양陽의 기운이 되살아나는 날로,
오래전부터 "이날 세운 원력은 크게 자란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새해의 첫 기운을
동지에서부터 일으키는 것이지요.
셋째, 자신과 가족의 건강 ·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동지는 병마를 물리치고
액운을 멀리하는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불가에서도 이 전통을 이어 가족 모두의
평안을 기원해 왔습니다.
넷째,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 가르침과
다시 연결되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바쁜 삶에서 잠시 멈추어 "나는 어디에서 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 순간,
이미 우리 마음은 새로운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전통이 바로 동지팥죽입니다.
한국의 동지풍속 가운데 가장 널리 이어져 온
문화이며, 불가에서도 오랫동안 소중히 지켜온
풍습입니다. 동지팥죽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중국 한나라의 학자 동방삭이 죽은 뒤에도
귀신이 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팥을 유달리 싫어했다고 하여,
민간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쑤어 문에 바르고
나누어 먹으며 액운과 잡귀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이 삼국시대 이후 우리나라에 전해져,
동지에는 팥죽을 먹어 액운을 막고 건강을
기원한다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 풍속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민간에서 말한 '잡귀를 쫓는 팥죽'이라는
이야기를 넘어, 붉은색이 지닌 보호 · 정화의
상징성, 그리고 곡식으로 만든 공양의 의미를
중시해 왔습니다. 붉은색은 오래전부터 재난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팥과 쌀을 함께 고아 만든 죽은 곡식의
에너지와 생명의 기운을 담은 공양이기에,
동지팥죽을 먹는 행위는 단순한 음식 섭취를 넘어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새 기운을 채우는
수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옛 사찰에서는 동짓날 아침부터 큰 가마솥에
팥죽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먼저 삼보전에 올려
공양드리고, 이어 대중 스님들이 나누어 먹으며
한 해의 액운을 막고 청정한 기운을 맞이했습니다.
이후에는 사찰을 찾는 신도들과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며 "이 겨울,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팥죽 한 그릇 속에는 따뜻한 차의
연기보다 더 깊은 온기가 있었고, 그 온기는
자연스레 수행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법주사에서도 매년 동지기도와 동지팥죽 공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절을 찾는 불자님들이
한 그릇의 팥죽을 드시며 "참 따뜻하다",
"이제 새해를 맞을 준비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팥죽이 가진 힘은 음식 이상의
의미임을 다시 체감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정성으로 나누는 마음'이
그대로 기도와 공덕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으시곤 합니다.
그러나 동지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부처님 앞에서 올 한 해의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이어 가족의 건강, 자신의
밝은 미래, 나아가 모든 생명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자비심을 내면 기도는 이미 완성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동지기도를 마치고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드시면,
마음과 몸이 동시에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지기도의
효험效驗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 앓던 근심이
사라졌다 하고, 어떤 분은 가족 간의 갈등이
풀렸다고 하며, 또 어떤 분은 새해 문턱을
넘기도 전에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각기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힘은 정성에서 나오고,
그 정성은 반드시 삶에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동지는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시작을 부처님과 함께 열어가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올해 동지기도에도 부디 많은 분들이
도량을 찾아오셔서, 부처님 전에 마음을 밝히고
따뜻한 팥죽으로 새 기운을 채우시길 청합니다.
법주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고,
기도로 새 힘을 드리는 도량이 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동지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동지와 불교

편집부

한국 불교에서는 동지를 귀한 날로 삼고 있다. 동지는 일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중에서도 마지막 날이다. 불교에서 동지를 크게 중요시한 것은 연말연시를 맞아 젊은 스님들이 노사를 찾아가서 일년 동안의 지도를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도를 바라는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팥죽과 불교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으나 불교의 자비 정신의 실천인 방생과 연관된 듯하다. 여기에 관련된 오랜 전설을 하나 소개한다.

옛날 신라 시대에 젊은 선비가 살았는데 참으로 진실하게는 살았으나 하도 궁하게 살았는지라 하루는 과객이 찾아와서 하룻밤 묵어가고자 하여 편안하게 쉬어 가게 하여주었더니, 과객이 다음날 새벽길을 떠나기 앞서 친구가 되고자 하여 주인인 젊은이도 젊은 사람이 훤칠하게 생기고 밉상이 아니라 그렇게 하자고 승낙하고 언약을 하였는데 이 젊은이가 가난한 선비를 위하여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하여 주었다. 선비는 젊은이가 시키는 대로 내년에는 벼를 심으라고 하면 벼가 풍년이 들고, 고추를 심으라 하여 고추를 심었더니 고추 농사가 풍년이 드는지라 수년간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이 과객은 대개 밤중에 찾아와서 날이 새기 전 닭이 훼를 치면 사라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주인 선비가 자꾸 수척하여져 잘 알고 지내는 어느 스님에게 문의한즉, 스님께서는 그 선비에게 하는 말씀이 '과객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 하였다. 선비는 시키는 대로 물어보았더니 '백마의 피를 가장 싫어한다'고 하였다. 젊은 선비는 스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 과객이 속으로 은근히 두려워서 자기 집의 백마를 잡아서 온 집안 구석구석 백마의 피를 뿌렸더니 그 과객으로 변장한 도깨비가 왔다가 도망가면서 저주를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 선비는 건강이 좋아졌다. 그런데 해마다 동짓날이면 이 젊은 과객이 잊지 않고 찾아오는지라 젊은 선비가 스님께 '해마다 백마를 잡아서 피를 바를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스님께서는 그렇다면 팥물이 백마의 피와 빛깔이 같으니 백마의 피 대신 팥죽을 쑤어 그것을 도량에 뿌리라고 하였다.

초순에 동지가 들면 그해는 일반가정에서는 팥죽을 끓이지 않고 절에 가서 팥죽을 먹고 돌아온다. 집에서 팥죽을 끓이면 애기동지라 애기에게 좋지 않다는 전설에서 온 듯하다.

불교와 동지는 현재의 모든 현상을 종합할 때, 민속 문화와의 결합으로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의미와 함께 총림의 인사왕래와 재식이 근본으로 생각된다.



●●수행여화

만 가지를 잘할 필요가 무엇 있으랴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요 며칠은 자고 일어나면 나무 발치마다 낙엽이 수북하다. 산딸나무 단풍이 그리도 무성하고 고왔는데 어느새 잎이 다지고 빈 가지만 남았다. 저 아래 은행나무 단풍도 그토록 선명하더니 그날이 언제였나 싶다. 간밤에 찬 서리 내리고 날씨가 스산해지더니 하룻밤 사이에 겨울이 된 기분이다. 깜빡 잊고 미처 들여놓지 못한 수국 화분은 잎이 다 얼었다.

그러나 어김없는 계절의 순환과 변화가 지속되는 한 지구는 살아 숨 쉰다. 이같이 모든 것은 변화의 질서 속에 있다. 만약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의 몫일 것이다. 생명 있는 존재는 늘 변화하기에 거듭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절이 주는 풍경들을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지난주 내내 시간을 들여 주차장 정원석을 허물고 다시 쌓는 공사를 했다. 한겨울 추위가 기습하기 전에 서둘러 감행한 일이었다.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이들은 멀쩡한 돌을 빼내고 왜 쑤석거리나 했을 테지만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둔 일이었다. 어느 때 기회가 되면 꼭 고치고 싶었던 공간이었다.

애당초 절을 건립할 때 서둘러 돌을 배치하는 바람에 수평도 어긋났거니와 조형미도 별로라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는 김에 석축을 모조리 들어내고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이번엔 모나지 않게 오와 열을 맞추어 조화롭게 배열하였더니 무척 마음에 든다. 이미 완성된 곳을 다시 손보는 일은 성가신 과정이지만 어떤 부분이 내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꾸는 게 나의 성미라서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숙제 같은 일을 해결하고 하면 두고두고 기분 좋다. 그 일을 끝낸 지금은 그 앞에 설 때마다 흐뭇하고 뿌듯하다. '먼저 내 마음에 들어야 남의 눈에도 든다'는 원리는 어디서건 적용된다. 그땐 최선이었으나 지금은 아닐 때가 많다. 어쩌면 그것은 유별난 성격이라기보다는 내 안목이 달라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남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살짝살짝 손댄 공간이 많다.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돌탑이 해체되고 몇 그루의 나무가 다른 위치로 옮겨갔지만 설명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더라. 늘 부언하는 것이지만 정원은 '관리의 기술'이다. 다양한 화목을 심었다 하더라도 손길이 세심하지 못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그렇기에 수시로 노력을 보태줄 때 그 정원은 더욱 빛나고 단정해지는 것이다.

여기 정원은 햇살과 바람이 만든 게 아니라 봉사자들의 손길과 정성으로 만들어졌다. 언제든, 누가 이곳을 방문하더라도 잘 정돈된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봄부터 겨울까지 쉬지 않고 정원 일에 몰두하게 된다. 오늘도 고춧대 걷어내고 대파 심느라 오전 시간을 다 보냈다. 정원에는 온통 일거리가 밀려 있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물건 하나라도 제 자리를 잡지 못한다.

다음 달에 먼 곳으로 여행을 열흘 남짓 다녀와야 하는데 그 기간에 정갈한 정원 표정이 달라질까 그것도 걱정이다. 이제까지 마당의 낙엽 한 잎도 용납하지 않고 쓸고 정리했는데, 만약 절 비운 연유를 모른 채 방문한 손님이 여기저기의 가랑잎을 목격한다면 소문과 다르다며 실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소를 누가 대신해줄 수 없기에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거센 바람이 산등성이를 넘어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

어제는 초로의 여성 한 분이 우리 정원을 처음 방문하여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 (대부분 자세히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정원은 공짜로 보는 게 아니라면서 4인의 음료값을 지불하고 갔단다. 이런 날은 종일의 피로도 사라지고 가슴도 따뜻해진다. 정원을 가꾸는 나의 목적과 소신이 어느 정도 교감 되었다는 기쁨에서다.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내 열정을 알아준다면 그 또한 보람 아니겠는가.

올엔 나의 이런 노력의 보상이었는지 이곳이 우리 지역의 민간정원으로 지정되는 큰 경사가 있었다. 사찰이 소유한 꽃밭이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사례도 드문 일이라서 그 역할이 더욱 커졌다. 비로소 정원을 통해 전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것이다. 여태 주창해왔던 '미래의 종교는 정원이다'는 논리가 현실에서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이들이 정원에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장소는 어떤 교리보다 우월하고 숭고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화려한 성소보다는 한 평의 정원이 더 필요한 시대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어느 사찰에서 '천 가지 중 오직 하나만 잘하면 그것이 국보다'라는 법어를 보았다. 만 가지를 잘할 필요가 무엇 있으랴. 내가 즐기며 나눌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잘하면 그게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정원 속에서 꽃의 경전을 읽으며 그 뜻을 이웃에게 전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일이기에 그렇다.

법설의설경法說義說經

연기법緣起法의 의설義說 – 열한 번째

고광 스님 법주사 노전

속리산을 새빨갛게 물들인 단풍이 어쩌면 이리도 아름다울까요?

필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마다 석문까지 계곡을 따라서 포행하는 일정한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도량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국화로 장식된 법주사에 감탄하면서 왁자지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량 한 바퀴 돌까?' 하다 아침에 걸었던 그 고즈넉한 포행 길로 또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침결에도 분명히 그 길에서 단풍을 만났건만, 오후의 눈 부신 햇살이 더욱 새빨갛게 물들인 단풍의 자태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름답다기보다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단풍은 잎이 생명을 다해 떨어지기 전 모습이라, 어쩌면 슬퍼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감정은 언제나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보는 사람의 가치판단이 더 우선하기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죽어가는데 그것을 참 이쁘다며 깔깔거리며 손뼉 치고 구경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며 크게 비난할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이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생명체라는 입장으로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존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호는 법설의설경의 열한 번째로, "취착(取)과 존재(有)의 관계"를 법설法說과 의설義說의 관점에서 차이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경전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緣取有者 云何爲有? 三有 欲有 色有 無色有.

취取를 연한 게 존재〔有〕라는 자는 무엇이 존재〔有〕가 된다고 일러주는가? 세 가지 존재(三有)라면서, 욕계 존재〔欲有〕, 색계 존재〔色有〕, 무색계 존재〔無色有〕라고 한다.

법설法說에서의 취착(取)과 존재(有)의 관계는 서로에게 의지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무엇이 존재한다는 생각'의 사건은 '그것은 반드시 그것이어야만 한다는 취착取著'이란 사건과 만나야만 비로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착하는 생각'이란 사건이 일어나야 '존재한다는 생각'도 함께 일어나고, '존재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취착 하는 생각'이란 사건도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취착하는 생각'이 사라지면 '존재한다는 생각'도 함께 사라지고, '존재한다는 생각'이 사라졌다면 '취착 한다는 생각'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 '존재로 바라보는 비구(諸比丘)'들과 중생衆生들은 언제나 존재에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3가지는 '욕계의 존재(欲有)', '색계의 존재(色有)', 그리고 '무색계의 존재(無色有)'입니다. 이 3가지 존재를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인도인들의 생각이고 증명된 사실도 아님을 숙지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럼 고대 인도인의 생각을 따라가 볼까요.

고대 인도인은 업業의 선악善惡에 따라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欲界)', '욕망이 사라진 모양만 있는 세계(色界)' 그리고 '욕망도 모양도 모두 사라진 세계(無色界)'에 태어나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를 욕계의 존재(欲有), 색계의 존재(色有), 무색계의 존재(無色有)라고 생각했고, 또한 이러한 존재는 업력業力이 다하면 다시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선정禪定 수행修行의 정도에 따라 태어나는 천상天上의 종류가 달라진다고도 생각했는데, 그 천상 세계도 욕계천欲界天, 색계천色界天, 무색계천無色界天으로 나누어 생

각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낮은 단계가 욕계천으로, 이곳은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천상 세계(地居天)'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사는 천신들이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색계천과 무색계천이라는 '하늘에 있는 천상(空居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태어나려면 삼매三昧를 닦는 수행으로 자아인 아트만을 찾아내 브라만과 같은 신성神性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신성으로 되돌렸는지에 따라 살아가는 천상 세계도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상에 가기 위해 선정禪定 삼매三昧를 닦았던 것입니다.

선악의 업 정도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지든, 선정의 정도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지든, 여기에는 모두 변치 않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취착(取)과 존재(有)의 관계를 '서로가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 업業을 취取하든, 선정禪定을 취해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바로 '취를 연한 게 존재'라는 설명으로, 당연히 의설義說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던 세상에 내가 태어나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죽을 때조차도 그런 세상에 살다가 나만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과연 이 생각이 사실일까?'를 의심했고,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아無我와 법계法界를 설명하기 위하여 12 연기를 설하셨건만, '모든 것을 존재로 바라보는 중생'인지라 다시 그것을 자아와 세상으로 해석해서 자아가 업業이나 선정禪定을 취取했기에 욕계 존재, 색계 존재, 무색계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에 근거한 윤회로 연기를 이해한 잘못된 의설義說'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또 더 잘 이해되기에 필자 역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시작은 의義자를 '옳다', '뜻', '진실'과 같은 단어로 이해해서 생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 번 밝혔듯이 부처님 경전에서 '의義'는 '거짓'이란 뜻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순한 한 글자의 오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제아무리 근거를 대고 말해도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노려보기만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이렇게 오해하여 의설을 생산한 사람들도 있었으니,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주사 불자는 법이 머무는 사찰에 다니시니, 그 이름값만큼 곧바로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속리산의 새빨간 단풍
법주사의 국화 향기에 취해
하마터면 그 아리따움에
또 가슴 설렐 뻔했네.

어느 가을날에
법주사 응향각에서.

법주사의 숨결을 따라

무진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나무아미타불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법주사 종무실장 안춘석 거사님과 함께
제천, 충주, 단양 지역 및 수도권에 있는
법주사 말사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종무행정지도'(감사, 監査)를 다녀왔습니다.
지도로 보면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충청지역의 사찰은
산길을 굽이굽이 달리는 구도로舊道路를
이용해야 했고, 각 사찰 간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
하루 일정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서는 종무실장님께서 들려주신 각 말사들의 역사와 법주사에서 직접 살펴보셨던 불사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말사 등록 시 출장으로 다녀오셨던 경험, 각 도량의 불사 과정에서 느끼셨던 일화들을 전해 들으며, 법주사의 행정과 도량 조성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정성 위에 쌓여온 역사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도량을 방문하며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현장의 생생함'이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포교에 전념하는 도량이 있는가 하면,
깊은 산중에서 오직 법등法燈 하나로 신심을

지켜가는 스님들도 계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법홍포에 온 힘을 다하는
스님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사찰은 신도 수가 많지 않지만 주지스님의
꾸준한 정진으로 도량이 정갈히 유지되고 있었고,
또 어떤 사찰은 지역민과의 인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행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법주사의 숨결'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류로만 보던 사찰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노고와 정성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뵌 주지스님들과 종무원분들의 진심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자연스레 물었습니다.
"나라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토록 묵묵히 불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신도님들께 신뢰를 얻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돌아오는 길 내내
제 수행을 다시 다잡게 하는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여덟 시에 출발하여 사중에 복귀하면
밤 아홉 시가 훌쩍 넘는 일정이었지만,
그 하루하루는 피로보다 감사가 깊었습니다.
특히 종무실장님의 헌신적인 행정 모습은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연세가 적지 않으심에도 모든 사찰의 상황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에 맞게 안내하며,
법주사의 행정과 역사에 대한 애정을 담아
말씀하시는 모습은 '소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묵묵한 정성과
무거운 책임감은 한 자리를 오래 지키며
그 일을 수행한 분만이 낼 수 있는 울림이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저는 '법주사'라는 이름이
단지 본사 한 곳의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도량과 스님들, 불자님들이 함께 짓는
하나의 큰 이름임을 실감했습니다.
각 도량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법등이며,
그 빛이 모여 법주사의 도량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을 마치며, 저는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법주회보를 통해
법주사와 인연을 맺고 계신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말사 도량 한 곳을 찾아
참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절에서 느끼는 울림과는 또 다른,
작고 고요한 도량만의 수행의 숨결이 있습니다.
스님들의 정진이 담긴 그 자리에서
잠시 합장해 보신다면,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오늘 우리 곁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자연스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법홍포의 최일선에서 정성을 다하고 계신
모든 주지스님과 종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주사의 행정과 역사, 그 현장을
오래도록 책임을 다해주신 안춘석 종무실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주사 대중스님들의 정진이 환하게 빛을 이루어,
법주사와 그 말사들이 언제나 법의 향기 가득한
도량으로 이어지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1500년 사찰 법주사 템플스테이
[2023, 24년도 최우수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

마음을 비우다 … 마음을 채우다 …



당일형
-108배 및 염주 만들기
-세조길 걷기 명상

휴식형
-법주사 문화재 둘러보기
-저녁/새벽예불
-세조길 걷기 명상

평일 체험형
-108배 및 염주 만들기
-향기명상 (Aromatherapy)
-세조길 걷기 명상

주말 체험형
-선명상 (1박2일, 2박3일)
-세조길 걷기 명상
-수정봉 걷기 명상
-스님과 차담

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법주사 공양미



신도님들께서 부처님께 정성으로 올리시는
법주사 공양미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음성 미타사 밝은언덕노인요양원 등으로
기부되어 아프고 힘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공양미를 올리시는 불자님들은 부처님처럼 진리의 길을 걷는
부처님의 길을 가시며 거룩한 자비행을 실천하시는 분들입니다.

2025. 12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0.12	2 13 합창단법회	3 14	4 15 보름 동안거결제 동안거백일기도입재	5 16 미륵재일	6 17 월성대종사 49재 광명진언기도
7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8 19 다도반법회	9 20 만공대선사다례	10 21	11 22	12 23 동안거 포살법회	13 24 관음재일
14 25	15 26	16 27 동지기도입재	17 28	18 29	19 30	20 11.1 초하루/신중기도입재 다라니독송기도 보현회 법회
21 2	22 다도반법회 3 동지(00:03) 동지기도회향 신중기도 회향	23 4	24 5	25 6 크리스마스	26 7	27 소설 8 약사재일
28 9	29 10	30 11	31 12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소식



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
천년의향기 체험프로그램


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
천년의향기 체험프로그램



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
천년의향기 문화공연



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
천년의향기 체험프로그램


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
천년의향기 체험프로그램



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
천년의향기 문화공연



법주사 진해당 현판식



법주사 진해당 현판식

●●말사 소식




진천 문수암 지정스님 주지임명


천안 정안사 도겸스님 주지임명

미륵재일기도 – 12월 일정 : 12월 5일 금요일 오전10시

미래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시고 용화정토를 이루실 미륵부처님께
매월 음력 16일 올리는 기도입니다.

광명진언기도 – 12월 일정 : 12월 6일 토요일 오후1시

깊은 죄업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의 힘으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진언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기도 – 12월 일정 : 12월 7일 일요일 오전10시

중생구제를 대원력으로 삼으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고 공양을 올리며
연이 닿은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12월 일정 : 12월 20일 토요일 오후1시

중생의 아픔을 자비의 눈으로 보살피시고 구원의 손길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 12월 일정 : 12월 20일 토요일 오전10시

신중기도는 매월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을
잘 열어가시기 위한 신심의 발로입니다.

생일불공 – 생일부터 3일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더 없이 복된 날에 부처님전에 정성드리는 인연을 지으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043)**543-4755 , 010-6732-0133**로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 법회일은 법회준비와 현장접수로 인해 통화가 어렵습니다.
- 법주사 기도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법주사)

을사년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안내



불기 2569년 을사년 윤년을 맞아 대웅보전 세분의 부처님과 수행정진하시는 스님들께
무량한 공덕을 담아 가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사는 복전福田의 으뜸이며 여래의 웃옷이며 보살의 큰 옷”이라며
가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가사는 불보살님의 몸을 보호하며 수행자로서의 표상이었습니다.
가사를 공양하는 일은 삼보의 한 존재인 승보를 보호하고 불자로서
불교를 수호해 나가는 일이기에 가사불사는 가장 중요한 공양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법佛法과 불성佛性의 상징인 가사를 공양하는 일에 두루 동참하시어
한량없는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고 현세와 내세에 청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 삼존불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가족 **100**만원 (세분 부처님의 가사집에 성함을 올려드립니다)
- 승보공양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분 **40**만원
  ※ 법주사 스님들께 가사지어 올려드리는 불사로 스님의 가사에 공양올리신
  불자님 성함 올려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351-1338-2785-53**(법주사)

승려복지 후원 안내

신도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이 스님들께는 큰힘이 됩니다.

■승보공양 후원동참자

송숙재 김순자 김규영 최성락 권구철 김태홍 박근식 김명숙 민혜숙 백동윤 김복순 연용덕

승보공양은 스님을 가장 스님답게 모시는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불자님들의 승보공양은 스님들께서 수행과 전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불자님들의 정성스러운 승보공양 동참은 불법의 수호와
홍포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CMS 1인 1구좌 후원에 널리 동참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이 아닌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승보공양 동참안내 계좌이체 농협 351-1323-1288-03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병오년 운맞이 일년기도

불자로서 밝은 인연의 길을 열어주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한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가 풍요로운 복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운맞이 일년 기도를 봉행합니다. 일년을 계획함에 있어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로
첫걸음으로 삼으신다면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여는 운맞이 일년기도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으로 일년 내내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만복이 가득한 일상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기도 입재 및 회향** : 2026년 **1**월 **1**일(목) ~ **12**월 **31**일(목)
- **동참보시** : 한가족 **3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 **법주사 원주실** : 기도접수 043)543-4755 / 010-6732-0133(카톡/문자전송번호)

※ 매월 2째주 4째주 수요일은 원주실 휴무일입니다.

吉祥如意

푸르른 속리산 소나무에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남은 12월 달력 한 장이 못내 아쉽습니다.
세월에 지나감에 한 해가 지나가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시작할 때의 목표와 다짐을
성취하셨거나 잘 지켜오셨습니까.
연말은 회향廻向의 달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걸맞은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참회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가피가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삶과 나와 내 주변의 크고 작은 모든 인연들
그 자체가 모두 가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음에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는 지혜를 가지세요.
비록 내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가피아래 무탈하게
한 해를 보냄을 감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슬기롭게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 법주사 모든 신도님들께서 새로운 다음 해를 준비하며
비록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며
항상 자유롭고 건강하며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 속리산 법주사 주지 정덕 합장 –

